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83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4,25-3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됩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9/8 연중 제23주일(루카 14, 25-33) 버림과 따름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을 갖기로 작정한 달팽이가 한 마리 있었다. 달팽이는 곧 아름다운 큰 집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행복해 했다. 세월이 지나 달팽이가 살던 양배추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이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달팽이는 집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어린 달팽이가 말했다. “나는 작은 집을 가져야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말아야.” 달팽이는 큰 집을 지님으로 자유를 상실했다. 그가 만일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았다면 소유가 아닌 자유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당시의 군중들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삶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 중에는 쉽게 일치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과거의 삶의 자세와는 달리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소유한 채 부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소유물을 버림은 자신의 삶의 근거와 기반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따르라고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해 무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집착함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사물과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은 늘 안정된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들은 단지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지 동물로서 삶의 가치는 모를 것이다. 반면 정글과 사바나에서 사는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아다니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 힘든 과정이 있기에 싱싱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넓은 공간을 활보하며 자신을 품어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물을 최고로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분을 따를 때 더 큰 세상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말씀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이 아닐까. 소유로부터 자유로우면 그 만큼 더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교구 9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신앙의 증거자로 순교하신 한국 103위 순교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고 기림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정성을 함께 모읍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룻기 1-4장

◆ 룻기에 대한 소개

저자: 오랜 세월 전해져 오던 전승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이 책은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역사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를 성문서로 분류한다.

시대 배경: 룻기에서는 판관 시대를 ‘옛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판관 시대보다 상당히 후대에 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히브리어는 기원전 6세기 유배 이후에 당시 근동의 공동어인 아람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룻기 곳곳에는 이런 영향이 발견된다. 이는 룻기가 쓰인 시기가 유배 이후, 혹은 그보다 상당히 후대였음을 말해 준다.

편집 목적: 저자는 룻과 나오미라는 두 여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애뜻한 신뢰와 존경을 보여 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율법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주요 내용: 룻기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다. 우선 기근과 죽음이라는 열악한 상황이 그려지면서 룻과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룻은 이민족 여인이지만 남편이 죽어 없는데도 나이 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효성 지극한 며느리였다. 결국 하나님과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다윗의 증조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한 룻기에는 이스라엘 고유의 풍습들이 소개된다.

고엘 법: 룻기를 읽다 보면 ‘구원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룻 2,20). 이 말은 고엘 법, 고엘 제도에서 유래된 말로 고엘은 ‘구원자’ ‘속량자’라는 의미이다. 고엘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 친족끼리 서로 도와주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기본 조직인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룻기에서는 보아즈라는 인물이 두 과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도움을 주는 구원자로 등장한다.

◆ 성서문제

1. 룻 1,16-17을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 머물립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 겨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2. 룻 2,12을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해 주시기를 빈다.

3. 룻 4,5을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주어야 하네.“

4. 룻기 4장을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보아즈와 룻이 혼인하여 낳은 아들로, 후에 다윗의 할아버지(조부)가 될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

- ① 람
- ② 나호손
- ③ 살마
- ④ 오벳

◆ 말씀과 생활 나누기

룻은 이방인이면서도 여느 이스라엘인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지극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삶은 신자가 아닌 이들의 삶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나는 신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앎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진과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직곡 현 정 수



수 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중-기 하 고 봉 사화 자 세 상 모두에 게



마 음 보-아 기 도하 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